

그 때 그 자리



청량리역 광장과 91년 5월의 기억

이명원

한 개인에게 또는 한 세대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는 특정한 장소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둘러싼 주관적 기억과의 관련성 속에서 상징적 의미를 확보한다. 특정한 공간이 물리적 '장소'가 아닌 의미 있는 '표상공간'으로 질적 전환되는 이유는 거기에 그 공간에서 활동했던 인간들의 기억이 집단적으로 공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간은 이처럼 인간들의 기억을 공유하면서, 거기에 일정한 이미지와 의미 내용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특정한 표상체계로 작동한다. 그것은 마치 2002년의 월드컵 열기를 거친 세대가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대학로 같은 공간을 잡다한 이미지가 스쳐지나가고 익명의 대중들로 가득찬 무의미한 장소로 기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리응원에 참가했던 젊은이들에게 이들 공간은 현대적 소외와 사물화의 질서가 극적으로 지양된 '친밀성의 공간'으로 표상될 것이다. 이런 공통의 기억을 통해 특정한 공간을 둘러싼 표상체계는 질적인 의미 변화를 거치게 되며, 이 공유된 표상체계가 기억을 집단화하면서 역사라고 하는 수로로 흘러들 것이다.

이른바 91년 5월 투쟁이라고 명명되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에 동참했던 젊은이들에게도 그들의 집단적 기억을 자극하는 표상체계로서의 특정한 공간이 존재할 것이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경제학과 신입생이었던 강경대가 백골단의 폭력진압 와중에 피살됨으로써 한 달 여에 걸쳐 전개된 이 투쟁은 대중적 학생운동의 마지막 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의 역사적 하강국면을 특징짓는 사건으로 기억된다. 당시의 서울 거리, 즉 신촌 로터리와 시청 앞 광장, 종로와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공간들은 일상적인 삶의 질서에서 비약해 역사적 의미를 내포한 공간으로 질적 변화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기억 속에는 당시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운집했던 이들 공간보다는 그 동안 별다른 조명이 되지 못했던 청량리 로터리라는 공간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 서울의 부도심이라고 할 수 있을 청량리 로터리 주변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조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생각에는 한국적 자본주의의 기형성이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철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서울역을 제외하면 청량리역은 지방 거주민들이 서울로 이주하는 판문 구실을 하는 공간이다. 태백선과 영동선의 출발점이 청량리거리와, 낙후된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 판문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모색을 위해 서울로 들어온다. 철도를 제외하고 청량리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속칭 588로 불리는 대규모 홍등가의 존재이다. 20대의 젊은 매춘여성들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육체를 자본과 맞바꿀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인간 조건이 구

조화된 공간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 조건을 공간적으로 은폐하는 또 하나의 도상학적 상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청량리 로터리에 거대한 풍채로 세워져 있는 롯데 백화점이 그것이다. 독일의 문예학자인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물신에 대한 현혹이 왕성하게 작동되는 곳인 동시에, 현실의 고통을 은폐하는 이미지의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환영의 공간이기도 하다. 백화점에 진열된 찬란한 상품들을 음미하면서, 대중들은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남루한 일상의 질서를 순간적으로 망각하게 되며 물신화된 상품의 유혹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은 롯데 백화점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적 구조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다.

롯데 백화점은 청량리역 광장과 이어져 있으면서, 로터리 쪽에서 보자면 588이라는 물신화된 성적 노동의 공간인 홍등가를 간단하게 은폐하고 있다. 상경하는 지방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적 풍요의 환상을 서울의 최초 이미지로서 제시하며, 그들이 맞부딪칠 것이 분명한 흑독하기 그지없는 노동 현실을 상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 백화점 공간과 대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 경동시장이다. 최근에는 경동 약령시장으로 이름이 개편되어 있는 이 시장은 흔히 한약재 전문시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농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인근의 마장동에서 유입되는 축산물들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동북부 물류의 중심지이다. 롯데 백화점의 경우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들이 소비의 주요 타깃이라면, 재래시장인 경동시장은 민중적인 소비 경향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래서 그런지 경동시장의 상인들을 제외하고, 이곳을 지나치거나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검토해 보면 오늘날 중심에서 소외된 민중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성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을 하층 동성애자들의 집단 군락지가 있다고도 하며, 구걸로 하루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홈리스들과 알코올 중독자, 앵벌이들의 모습도 손쉽게 발견된다.

흔히 간과되고 있지만 청량리 로터리를 축으로 해,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청량리에서 약간 올라가면 고려대학교가 있고, 내려가면 서울시립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존재한다. 서울의 신촌이라는 공간을 제외하면 종합대학들이 이처럼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신촌이라는 공간이 일종의 대학촌적 성격을 갖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량리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대학들의 존재는 해당 공간의 표상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과 청량리라는 지역적 공간은 마치 낯선 타인들처럼 존재한다. 따라서 청량리라는 공간은 정치적으로

는 무균질의 공간이면서, 자본주의적 소비 질서에 있어서는 여타의 소비 공간과 균질적인 삶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간단하게 지적인 청량리의 공간적 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실상 이 공간은 한국적 모순이 독특하게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면서, 시간의 층위에서는 근대와 전근대가 기묘하게 공생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간에 거주하거나 거쳐가는 사람들의 신분적·계급적 분포는 대단히 복잡하다. 주민 거주 영역에 있어서도 삶의 명암은 대단히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청량리역 건너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해당 지역의 중산층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반대편 지역, 그러니까 전농동에서 답십리에 이르는 지역들은 이른바 도시 빈민이라고 할 수 있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듯 청량리라고 하는 공간은 한국 사회의 모순이 기형적인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 공간이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지역운동 활성화는 한국 사회를 규정짓는 제반 모순과의 핵심적 투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청량리라고 하는 공간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무균질의 공간이었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비판적 전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1991년 5월의 투쟁이 전개되는 와중에 청량리는 한때 해방을 향한 정치적 실천의 공간으로 전화됐던 적이 있다. 전대협 산하 동부지구 총학생회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들이 도심 거리시위에 나서기 위해 청량리 로터리에 집결했고, 자주 이곳을 정치적 집회의 공간으로 전유했던 것이다. 각 대학은 해당 대학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에 도보로 청량리역 광장까지 행진해 왔다. 청량리역 광장에 이르러 학생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거리선전전을 전개했는데, 이 와중에 전경들과의 가벼운 충돌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 대학신문은 다음과 같이 짧막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일에는 <백골단·전경 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길기대회>가 학생·시민 2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는데, 우리학교 학생 3백여 명은 동부지역 학생 1천여 명과 함께 청량리역에서 출발, 시청에서 집회를 가진 뒤 자진 해산했다.

— 「오는 9일 범국민대회 예정, 대부분 학과 동맹휴업 결의」, 『서울시립대 신문』, 1991. 5. 9.

1991년 5월의 청량리는 일시적으로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확보했다.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공간적 표상체계의 변화이다. 한국 사회의 모순이 집중된 형태로 체현된 공간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무균질성의 공간

이었던 청량리가,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상적인 삶의 질서에서 뛰쳐나와 살아 움직이는 역사적 공간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긴 것이기 때문이다.

1991년 당시 서울에서의 시위 중심지는 도심, 그러니까 명동과 종로, 신촌을 거점으로 한 전통적인 시위 공간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치적 시위의 중심지인 도심 지역 이외에 정치적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청량리 같은 부도심 지역이 시위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91년 5월 투쟁은 그 의식적인 연대감이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공간 자체를 광범위하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91년 5월 투쟁의 급진적인 해소 과정 또한 청량리라는 공간적 범주와 일정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91년 5월 투쟁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상징적인 사건은 한국외국어대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정원식 총리서리에 대한 학생들의 계란 투척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사태 자체만을 보면 가벼운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대중매체의 악의적인 왜곡과 과장보도로 그 사건의 정치적인 맥락이 희석되고 엉뚱하게도 '사제(師弟) 이데올로기'로 명명할 수 있을 시대착오적인 도덕적 범주로 치환됐다(당시의 언론은 학생운동 세력을 '패륜아'로 손쉽게 명명했다). 이것이 당시 서강대 박흥 총장이 남발한 '어두운 세력'의 음모론과 시인 김지하의 '죽음의 굿판' 같은 논설과 맞물리면서, 학생운동의 도덕성에 상징적인 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강원도로 들어가기 위해 가끔 찾곤 하는 청량리는 정물화된 시간 속에 정지해 있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늦은 밤이면 노점상들은 남루한 행인들의 배를 채울 우동을 팔고 있으며, 청량리역의 거대한 광장에는 맥도날드 햄버거 광고가 반짝거린다. 홍등가에는 여전히 주체할 길 없는 성욕을 방사하고자 하는 이름 모를 취객들로 가득하고, 앵벌이꾼과 시골에서 갓 올라온 듯한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역사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어쩌면 한국 근대사에서 청량리라는 지역적 공간은 다만 상품화된 성의 추파라는 이미지로만 기억될지도 모른다. 청량리의 이런 마뜩치 않은 이미지는 이미 이광수의 『무정』에서 예비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소설의 여주인공인 영채가 야비한 배학감에게 강간당한 곳으로 묘사된 공간이 청량리거니와, 그 공간은 다만 지나가는 행인의 시선 속에 불편한 남루와 질편한 향락의 이미지로만 남을 확률이 높다.

한 사회의 모순이 가장 집중적인 형식으로 드러난 공간이면서, 기이하게도 일체의 해방을 향한 기획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무수한 익명의 대중들이 낯선 타인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청량리의 현재처럼 91년 5월은 그 시절을 온몸으로 관통

했던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도 한 개의 에피소드로 남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분명한 것은 특정한 기억들, 공유된 추억들, 어떤 분노와 열망의 흔적들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기 중으로 가볍게 휘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시절의 주인공이었던 젊은 작가들이 서서히 10년 전의 기억들을 되살리려는 시도들이 문단에서는 최근 들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김별아의 『개인적 체험』이나 김종광의 『71년생 다인』 같은 작품에는 91년 5월의 거리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의 내면 풍경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그 풍경은 많은 경우 부채의식이랄까, 죄의식 같은 정서적 파문과 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청량리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 번다한 거리의 소음을 느끼면서, 나는 가끔 그곳에서 스크럼을 짜고 거리를 내달리는 분노에 가득 찬 젊은이들의 함성 소리를 듣게 된다. 물론 그것은 환청이다. 그런데 그 환청 속에는 예민하기만 했던 20대의 내가 있다. ■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자료관 및 기념관 건립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료(해외자료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대상 자료

●문서류

- 정기간행물
- 비정기간행물
- 팸플렛 및 보고서
- 유인물 / 각종 공문, 진정서, 탄원서, 리플렛, 성명서, 속보 등
- 법정기록물 / 공소장, 진술서, 조서, 항소이유서 등
- 단체기록물 / 자료집, 포스터, 정책자료, 회의록 등
- 기타 / 일기장, 서신, 메모 등

●시청각기록물

- 오디오류 / 녹취기록, 카세트 테이프, 운동가요 테이프 등
- 비디오류 / 비디오테이프 등
- 전자기록 / 디스켓, CD 등
- 사진 / 필름류/원판필름, 인화필름 MF필름, 슬라이드 필름, 앨범 등

●박물류

- 플랜카드, 걸개그림, 수의, 현판, 대자보, 판화, 그림, 포스터, 피켓, 시위용품, 달력 등
- 서예류
- 서화류
- 문구류
- 기타 / 명함, 인장, 목각, 뿔지, 메달 등

●도서류

문의 : 02-3709-7644~6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장의 기록물이 민주사회의 초석을 이룹니다.